지역 메아리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통합인지개선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는 부안군 거주 60세 이상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치매예방 통합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예방 통합인지개선 프로그램은 지난 7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 간 프로그램별로 매주 1회 운영되며 메디 댄스(월요일), 청춘노래교실(화요일), 웃음치료(수요일), 백세건강체조(목요일) 등 4개 분야로 진행돼 건강 100세, 행복한 노년, 치매 안심 부안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또 백산면 국성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인지훈련도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군 보건소는 부안군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치매 바로 알기 교육,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치매 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군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어류 종자 20만마리 방류

정읍시는 6일 동자개·붕어 종자 20만 마리를 칠보 수청제 등 5개소 저수지에 방류했다. 지난 6월에 메기 종자 16만 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갖는 방류 사업이다.

이번에 방류한 동자개·붕어 종자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적정한 규격을 갖춘 건강하고 활력 있는 것으로 판정된 개체들이다.

모두 2,800만원이 투입된 방류에는 수산경영인 등 어업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했다. 시는 내수면 어족 자원 확충과 토속어류 보존 등 자연생태 복원을 위해 2005년부터 방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잘 지키어 자연생태환경이 복원되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포획을 감시하고, 방류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한빛원전 방문

원전 정보 즉시 공개
철저한 안전·지원 당부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5일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5일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주요시설 등 현안을 파악하고 원전으로 인한 고창군 피해 등 실정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한빛원자력본부장을 만나 "한빛원전 각종 부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군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원전정보 즉시 공개와 현행 원전제도 불합리 개선 노력, 제도권 밖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빛본부는 주민을 안심시키는 상징적 차원에서 고정형감시기 전광판을 고창군에 미설치된 6개면에 설치하고 액체 폐기물 배출량 등 각종 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 등이 큰데 수혜는 없음을 군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특히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에 있어 고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창군 노력에 한빛본부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와 함께 한빛본부 직원이 거주하는 고창지역 시책 조기 구입과 통근버스 노선 확대, 추석맞이와 평상시 방문객 및 직원 선물용으로 고창 농특산품 구입은 고창 군민과 농민을 배려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알림 채널에 한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등도 고창군 입장에서 이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수거통에'

고창읍,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
외국어 한내 현수막 눈길

고창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병도)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창읍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특히, 체류 중인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읍은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창천변 및 집단거주지 부근(남흥동, 전통시장, 터미널 등) 골목길에 음식물혼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투기하고 이로 인해 심한 악취와 보건위생상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같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창읍 환경미화팀은 외국인 거주지와 인력사무소를 방문하여 올바른 쓰레기배출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5개 국어(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로 제작된 플래카드를 취약지역에 게첨하고, 음식물수거용기 배부를 통해 일반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적절하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고창읍 직원들은 쓰레기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쓰레기 파봉 분리작업과 더불어 무단투기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읍 박병도 읍장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쓰레기 종량제 수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홍보를 통해 배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시가지 녹지경관 정비 총력

정읍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추석맞이 녹지·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시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매일 32명(6개조)의 인력으로 가로화단, 도시숲, 소공원 등 녹지 98개소에 제초, 예초, 가지치기, 칡덩굴 제거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다. 또한 시의 관문인 정읍IC사거리와 시내주요화단 및 꽃박스 229개소와 정읍천 다리난간에 설치한 꽃 화분 1,481개소에 지난 8월말 웨이브페츄니아, 사루비아 등 8만본을 심은데 이어 추석 전까지 백일홍, 메리골드 등 총 14만본을 추가 식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꽃 식재, 칡덩굴 및 잡초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추석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정읍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6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 600여명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열었다.

기술경연으로 소통과 화합 이뤘다

'안전지킴이' 고창군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성료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6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 600여명이 소방기술경연대회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기술능력을 배양하여 민간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 체육경기를 통해 하나되는 으뜸조직으로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진행하는 행사라고 전했다.

기술경연에 앞서 심원남성의용소방대 강용규 대장 도지사 표창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으로 책임과 헌신을 다한 대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내빈으로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회의장, 김만기 군의원, 이황근 교육지원청 교육장, 그 외 각 기관 기관장이 자리를 빛냈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고창군이 무탈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창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며 기술경연을 통해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화합으로 고창 발전에 이바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 성공적 마무리 위한 위원회 열어

정읍시는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연지2지구(연지동, 시기동) 와 풍월1지구(영원면)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함으로써 2017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하여 경계분쟁 및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경계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완료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연지2지구는 2017년에 사업 완료 된 연지1지구와 인접하여 연계 추진된 사업지구로 연지동의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구도심지역의 토지가 대부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정금 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Digital)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 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를 국비 6억 8천여 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왔으며, 2018년에는 2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시기동과 신월동 일부(초산1지구)와 신태인읍 신태인리(신태인1지구)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전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현황조사 및 토지소유자 들과 경계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